

# “도난 성보찾기 잊고 있는가”

## “무관심도 훼손 방조” 교계 자성목소리 문화재사범 10명 구속...은혜사 탕화 회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가 도난당한 석가모니탱화는 1년 만에 되돌아 왔지만 도난 성보에 대한 회수대책의 부재는 여전히 불교계의 화두로 남아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검사 김병현)은 7월 27일 왕봉부장품과 사찰문화재 등 수십억원대의 국보급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문화재 전문도둑 및 절도범 20명을 검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80여점의 문화재를 압수했다. 압수된 문화재중에는 은혜사 탕화(시가1역)와 한광사 금동불상(시가5역)을 비롯 시가 15억원 상당의 조선조 소품놀이 청화백자 한세트 54점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지검의 문화재 절도범 무더기 검거는 문화재 도난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냈다. 교계가 한번 잃어 버린 성보문화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부터 현재까지 도난당한 성보는 모두 26점이지만 이 중 회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특히 95년 1월에 도난당한 송광사 16구사 진영은 경찰의 수사마저 지속되지 않은 가운데 당시

주지님에 대한 징계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마저 연출하고 있다. 또 도난 성보가 절도범에 의해 소각 시켜 버린 것으로 드러남에 대한 망설임도 있다. 사실 이 새롭게 부각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진불암의 탕화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소각 시켜 버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난성보는 영원히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갈수록 문화재 절도범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 이번에 검거된 도둑 및 절도범들은 전국과 해외를 무

대로 문화재 도굴·절도 및 밀반입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 도난 성보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구지검이 검거한 문화재 절도범들은 '문화재 도난도 심각한 훼손'이라는 인식이 교계에 보다 철저히 각인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교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공식을 뛰어 넘어 도난 성보에 대한 회수대책을 보다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 경주 남산 비파골 산불 복구 늦어 세계유산 등록추진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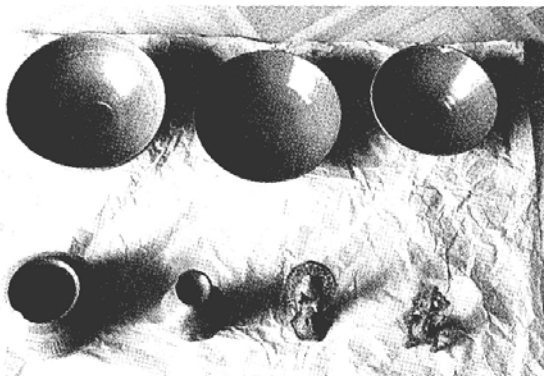
문화재 관리국이 지정한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남산 비파골에서 발생한 산불로 남아 70ha가 훼손됐으나 경주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순환도로와 인접한 14ha만 조림계획에 정지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의해 세계문화유산등록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경주 남산은 내년 6월말 유네스코에 상기로 등록을 신청, 2천여ha 상부에 유네스코 평가위원의 실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화오과장(경주시 공무원)은 "산불이 날 경우 3년이 지나야 토양의 미생물이 회복돼 조림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남산은 9월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때문에 좀더 빨리 조림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남산의 경우 문화재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도 어려워 현재 중앙정부에 조림계획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입상 2점(아래쪽 우측)과 청자대접 분청사기호 1점이 우이동 법안사 뒷편 바위틈에서 발견됐다.

## 연꽃잎 새긴 청자대접 발견

우이동 법안사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5cm 금동불입상 2점과 연꽃잎이 양각된 청자대접 1점, 15세기 분청사기 호(壺) 1점이 함께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청자대접은 초기 청자의 대표적인 특징인 '햇무리굽'의 형태를 띠고 있어 초기 고려청자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햇무리굽은 대접의 바깥쪽 바닥에 붙어 있는 넓고 둥근 모양의 굽이다.

김지연 기자

## '불교방송 후원회' 확대 개편

종단협 중심...올내 1만회원 확보 목표

불교방송 후원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7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을 당연직 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은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 총무원장과 종양승가대 총장 지하스님 조계종 초심회계원장 월서스님등 6명을 선임했다. 또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는 각 종단의 총무원장과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 등 50인을 위촉키

## 신도 사찰환경지킴이 '푸른봉은다솜회' 발대

"나는 이웃을 돕고 자연을 살리며, 인간과 다른 생물사이의 평등과 공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1기 봉은사 생태학교(교장 원혜) 지도자교육 수료식 및 '푸른 봉은다솜회'(회장 조현숙보살) 발대식이 7월28일 오후 봉은사 미륵전에서 개최됐다.

다솜회 회장 조현숙씨는 '만생명을 위한 봉은사의 서원'을 세우고 불교환경운동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다. '다솜회'는 봉은사 신도들로 구성된 최초의 사찰환경지킴이로서 지역·사찰·생활환경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봉은사는 분기별로 사찰 생태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해인골프장 착공

가야건설 1년 연장

해인골프장 사업주인 가야개발(대표 김선국)이 골프장건설 착공시한을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개발은 '착공시한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지난 4월 사업계획 착수기간 연장신청서를 경북도에 제출, 99년 4월22일까지 착공시한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IMF로 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해인골프장의 건설여부는 내년이 돼야 관가를 나게 됐다.

이윤호 기자

## 대불련, 통일부처님 봉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9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처님을 봉안하고 염주 3만개를 봉정한다.

높이 1미터 좌불련 통일부처님에 대한 봉안에 참가하는 대학생 불자 3백여명이 8일 강원도 낙산사 보타전에서 사경하는 '통일반야심경' 3백여장을 봉정해, '통일새상'을 바라는 청년불자들의 열의를 담는다. 대불련은 최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의 방북 초청을 받은 지선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통일부처님과 염주 3만개를 봉안에 전해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

농가사 대웅전, 범종 등 지방 문화재 3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고흥 팔영산이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도립공원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팔영산 일대 9.9km<sup>2</sup>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에 나서 관련기관 협의후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 실직자 용기백백캠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 부설 남구 희망의 힘터는 7월29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용기백백캠프를 실시했다.

40여명의 실직자들이 참가한 이날 캠프는 운문사 참배, 법문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캠프에 참가한 실직자들은 구직할 때까지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리는 토요나눔마당(노인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이윤호 기자

## 뉴스 & 뉴스

### 통도사 도메인 또 도용

사찰이름 인터넷 도메인이 또 다시 도용된 사실이 밝혀져 국내 사찰명도메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주요사찰 이름의 인터넷도메인 사재기로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또다시 통도사 도메인을 외국인 이 도용·등록한 사실이 추가 발생됐다. <본지 183호 23면 참조>

이같은 사실은 통도사 우진스님이 사찰도메인 사재기로 물의를 빚었던 마우스정이 등록을 포기한 후 'tongdosa.org' 도메인 등록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영국인에 의해 먼저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밝혀졌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탐사 대응전 철거명령 '위법'

진안군(군수 임수진)이 그동안 마이산 탐사(주지 이왕선)에 대해 대응전과 산신각 등의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1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지난 2월5일 판결한 계초처분취소권에 대한 진안군수의 상고처를 기각했다.

도필선 기자

### 대불련, 통일부처님 봉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9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처님을 봉안하고 염주 3만개를 봉정한다.

높이 1미터 좌불련 통일부처님에 대한 봉안에 참가하는 대학생 불자 3백여명이 8일 강원도 낙산사 보타전에서 사경하는 '통일반야심경' 3백여장을 봉정해, '통일새상'을 바라는 청년불자들의 열의를 담는다. 대불련은 최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의 방북 초청을 받은 지선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통일부처님과 염주 3만개를 봉안에 전해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

농가사 대웅전, 범종 등 지방 문화재 3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고흥 팔영산이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도립공원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팔영산 일대 9.9km<sup>2</sup>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에 나서 관련기관 협의후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 실직자 용기백백캠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 부설 남구 희망의 힘터는 7월29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용기백백캠프를 실시했다.

40여명의 실직자들이 참가한 이날 캠프는 운문사 참배, 법문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캠프에 참가한 실직자들은 구직할 때까지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리는 토요나눔마당(노인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이윤호 기자



1백여명의 불자들이 7월29일 조계사 경내에서 양심수의 조건은 전원석방의 기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행진했다.

## 8·15 양심수 석방기원 불교대책위 조계사법회

8·15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기원 대법회가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8·15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불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는 실정스님의 법어, 민가협 목요집회 스크린 시청, 아들에게 보내는 편

지 및 20여명에 대한 진관스님의 탄원서 낭독, 특별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또 조계사 경내에서 촛불행진도 펼쳤다.

한편 불교공동대책위는 이날 법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없이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신앙을 위해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최근 잇따르는 훼손행위를 보고 한 불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불교를 위상승배, 부처님을 마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 법회를 보고 있는 법당에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워진다는 것이다.

또다른 불자의 반응. "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잡아놓고도 정신병자로 취급, 몇 달 가뉘었다가 풀어주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과 정부당국이 훼손을 방조 내지는 묵인한 '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누구도 불자들의 신명공간인 절을 지켜주지 않는다. 불을 지르고 부처님을 깨뜨린 개신교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

나님의 명령이었다며 큰소리는 형극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종교권장 철거를 위한 공동조사 위원회'가 구성됐다. 7월 18일에는 부산과 제주 등의 불자들까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29일로 예정됐던

공동조사위원회 2차 회의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조사결과(성북구청, 송과구청, 부산 금신사, 국방부)에 따른 대응조치, 제주도 방문조사, 8월8일 법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진관스님과 법안스님(종회의원), 간사 손상

훈 종교권장대책위 사무국장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측 위원들은 불참했다.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총무원 성토장이 되었다. "불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귀하는 불상이 깨뜨려지고 스님이 대낮에 신도들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져 끌려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총무원은 뒷집만

지고 있느냐. 총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총무원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비를 들어 조사할

등을 벌인 스님들만의 항변이 아니다. 해불과 종교권장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있는지 총무원에 묻고 싶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신변의 위협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swjung@buddhania.com)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1부 차장)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물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공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팩과 멘들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양성작용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항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백이 암의 발생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힘의 효능, 몸의 효능, 악취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장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냄이 있고 킬하다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